

행복한 간호현장 만드는 '존중간호리더십'

간협, 존중간호리더십 교육과정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행복한 간호현장을 위한 존중간호리더십 과정'을 개발해 실시했다.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로 존중하는 간호문화와 간호리더십을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병원의 간호관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총 8개 모듈, 2일 과정으로 구성됐다. 문강분 노무법인 행복한 일 대표가 교육을 진행했다. 1일차 교육이 11월 29일 실시됐으며, 2일차 교육은 12월 7일 열린다.

첫째날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이론, 건강조직 모델 및 존중리더십, 간호현장의 괴롭힘 실태,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관련 법률 이해, 인사권과 노동존중 리더십,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체계 등이 다뤄졌다.

둘째날 교육은 괴롭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정부 정책, 괴롭힘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이해, 간호사의 근로시간·휴게·임금 실태,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 모색, 종합 개선안 도출 등으로 진행된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강분 대표는 강의를 통해 "좋은 간호사들이 취업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간호관리자들은 괴롭힘의 발생 기전과 맥락,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이해하고, 간호사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폭언·폭행 등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괴롭힘 금지와 예방에 대한 법과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며, 이와 함께 조직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강분 대표는 "간호관리자는 간호사들 개개인의 특성과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존중받는 간호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선 간호협회 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인력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과중, 괴롭힘, 이직,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간호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리더십 마인드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 촉구

간협 성명서 발표... 보조인력 보강 등 대책 요구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월 30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농어촌 벽오지 보건진료소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벽오지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혼자 근무하고 있기에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도 모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농어촌 벽오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안전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우려했던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경남 진주시 외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과한도로부터 두 시간이나 납치된 뒤 통장에서 550여만원을 빼앗기는 사건을 살려 들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 벽오지 주민의 건강관리는 공적업무만 수행하라고 책임을 떠맡어서는 안 된다"며 전국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900여명이 대부분 여성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들은 지난 37년간 농어촌등보건의료 취약지역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 증가와 도시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의료 소외감으로 인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버려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혼자 대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2016년 섬마을 선생님 사건 후 설치된 방범창과 CCTV 등의 사후대책으로는 예방책이 될 수 없고,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건진료소에 함께 근무할 보조 인력의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적조사 탐한 도서 벽지와 농어촌지역에서 여성이 혼자 주민의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위험에 처해 버려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혼자 대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2016년 섬마을 선생님 사건 후 설치된 방범창과 CCTV 등의 사후대책으로는 예방책이 될 수 없고,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건진료소에 함께 근무할 보조 인력의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경남 진주 외곽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거울삼아 정부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건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조직체계·문화혁신
배지 달기 캠페인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창녕요양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성기진)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대한 가톨릭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선행)에서 참여했다.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에 한ाम음성원병원 간호부(간호이사 윤연옥)에서 참여했다. 사진은 본관6병동(소아병동) 간호사들.

제39회 간호문학회상 수상작 발표

간호사신문이 주최한 제39회 간호문학회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간호문학회상 공모에는 소설 10명, 수기 25명, 시 45명, 수필 31명 등 4개 부문에서 총 111명이 응모했다. 간호사 85명과 간호대학생 26명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수필부문 당선작은 수상자가 없다.

◇소설부문 △당선작은 '밤의 실종'(김지연·전남대병원) △가작은 '방정식'(김이현·동국대 3학년)

◇수기부문 △당선작은 '내 마음의 깃발'(이명숙·보건진료소장 퇴직) △가작은 '당신의 일상 속 영웅은 누구인가요?(송영관·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간호학 박사과정)

◇시부문 △당선작은 '모르는 일'(김경옥·동의의료원) △가작은 '봄의 언어'(홍정미·경북 포항시)

◇수필부문 △가작은 '죽음의 체험 앞에서'(오주훈·녹색병원) △가작은 '토마토'(양세진·전북대 4학년)

심사는 소설과 수기부문은 전상국 작가(강원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시와 수필부문은 흥정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상금은 소설과 수기부문의 경우 당선작 70만원·가작 50만원, 시와 수필부문의 경우 당선작 50만원·가작 30만원이다. 시상식은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간호문학회상은 간호문화 발전과 간호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1978년 간호사신문(당시 간협신보) 100호 발간을 기념해 제정됐다.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총 269명의 간호문인을 배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한·중·일 보건분야 협력 강화키로

한·중·일 3국은 감염병 대응,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재난보건 위험관리 등 보건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11월 24~25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됐다. 한국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일본의 네무토 타쿠미 후생노동성 대신(장관), 중

국의 마 사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이 참석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순환 개최하며, 3국의 공통적인 보건 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에 대해 한·중·일 3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의 변화는 건강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 의료 정책의 무게중심이 '치료'가 아닌 '예방관리'로 옮겨

겨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각국 장관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최적인 의료지원 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제1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oo@



Nursing Anne Simulator

Nursing Anne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요 특징

- ✓ 무선 기능 및 독립형 설계
- ✓ 관절 움직임/운동 범위: 실제 환자와 동일한 케어 가능한 전체 관절 움직임 가능
- ✓ SimPad Plus 활용 심박수, SpO2, 혈압, 호흡수, 체온, ECG 및 etCO2를 표시
- ✓ 운영 체제: 자동 모드 및 수동 모드운영
- ✓ 자발호흡: 양측 또는 편측 흉부 상승
- ✓ 환자 관리/평가: 눈감박임 가능
- ✓ 맥박: ECG 동기화, 강도 조절가능
- ✓ 폐음: 설정 호흡수(0~60bpm)와 동기화된 가슴 및 등쪽 폐음 측정

주요 정보: 전신 여성 시뮬레이터, 기관절개관 튜브 실습 도구, 흉갈색 가발, 갈색 동공 세트, 기관절개관 튜브 실습 도구 및 주입 주사기, 장루 세트, 혈압 컷, 설치 안내서, 시뮬레이션된 혈액, 성인용 가운 및 빠른 설치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LLEAP 강사용 컴퓨터(태블릿, 러그드 태블릿, Laptop 혹은 All-in one)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Nursing Anne Simulator는 SimPad Plus/LLEAP 강사 컴퓨터로 작동되며 시뮬레이션된 환자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